



다시 대한민국!
새로운 국민의 나라

※엠바고 : 행사 종료 이후 보도 가능(대외협력비서관실 별도 공지) 배포 : 2023년 8월 31일(목)

윤 대통령, 추석 물가 점검

- 대통령, 제19차 비상경제민생회의 주재 -

- 대통령, 민생 안정과 내수 활성화를 위한 총력 대응 지시 -
- 장바구니 부담 감축 · 취약계층 지원을 통한 넉넉한 명절 -
- 국내 · 외국인 관광 활성화를 통한 내수 경기 활성화 -
- 가짜 뉴스 대응 · 정부 지원을 통한 수산물 소비 촉진 지원 -

윤석열 대통령은 오늘(8.31, 목)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19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며 최근 민생 현안을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.

이번 회의는 대통령이 ‘하반기 국정운영의 중심을 경제’에 둔 만큼 추석을 앞두고 국제유가, 기상 여건 등 물가 불확실성이 확대된 가운데, 추석 장바구니 물가 안정에 총력을 다하는 한편, 취약계층 맞춤형 지원 강화 및 내수 활성화 등을 통해 서민생활 여건을 개선하고 민생 안정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.

오늘 회의에서는 먼저 추경호 부총리가 물가, 소비 등 최근의 민생 여건에 대해 점검하고, ▲명절 물가 관리 및 민생 지원, ▲내수 활력 패키지(국내관광 및 외국인 관광 활성화 등), ▲수산물 소비 촉진 등 추진 방안을 보고했습니다.

이어진 토론에서 각 부처의 장관들은 부문별로 마련된 세부 계획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한 후 추석 연휴까지 모든 방안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.

마지막으로 대통령은 정책의 최우선순위는 민생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모든 부처가 국민들이 민생 안정을 체감할 수 있도록 민생 현장 구석구석을 직접 찾아 점검하고, 필요한 지원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.

오늘 회의에 정부 측에서는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, 문화체육관광·농림축산식품·고용노동·국토교통·해양수산·중소벤처기업부 장관, 금융위원장 등이, 국회에서는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, 대통령실에서는 이관섭 국정기획수석, 김은혜 홍보수석, 최상목 경제수석, 안상훈 사회수석 등이 참석했습니다. <끝>